

지역적 특성에 따른 노령인구 이동에 관한 연구

Trend in Elderly Migration by Regional Characteristics in South Korea

이정재(서울대학교 농공학과, lj@snu.ac.kr)

한이철(서울대학교 농공학과, twenty7@skypond.snu.ac.kr)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7.2%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 노인인구 14%로 예측된다. 이렇듯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노인은 지역계획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아, 이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관련연구는 식생활과 생활상, 지역특성으로 인한 수명변화 등 피동적인 연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인구이동과 같은 개인의 능동적인 선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면이 있다.

노인인구성향 등은 장기적인 지역계획 수립이나 지역의 호감도 평가등의 척도로 이용될 수 있어 권용우(2000)등에 의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김성태, 1997). 그러나 지금까지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미래의 인구를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인구 이동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노령인구는 노동인구와 달리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서 독립적인 이동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체요인을 포함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생잔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적 노령인구 이동량을 추정하고, 지도상에서 그 분포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자를 선정하여 노령인구 이동량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주요 인자에 대한 이동성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간 인구이동량을 파악하기 위해 1995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245개 시·군·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인구자료는 통계청의 1995년 2000년 시군구별, 5세별 인구자료를 구축하였고, 지역 특성 자료는 통계청 발간 시군구 100대 지표의 2000년 자료 중 산림율, 산업생산량, 지방세, 경지면적, 도로연장, 상수도 보급률, 이주율, 의사수 등을 이용하였고, Encyber(2000)백과사전에 있는 지역별 강수량과 평균기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구축된 인구자료와 집단생잔모형을 이용하여 노령인구의 유입지역과 유출지역을 구분할 수 있었으며, 노령인구이동에 관한 주요인자로 도시화가 반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